

# 제2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 및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2002년 7월 4일 (목) 14:00~17:30

주최·주관: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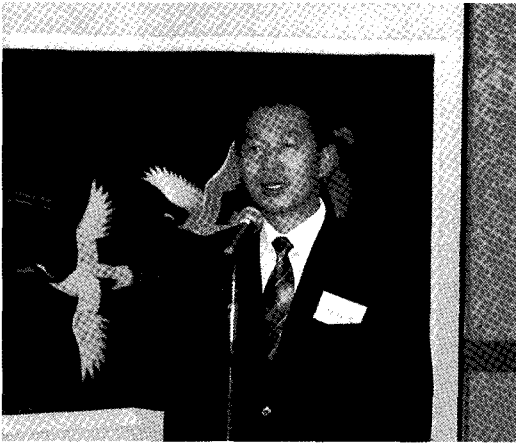
**“하나로 뚫뚫 뭉쳐 농업·농촌 지켜가자”**  
**- 한농연 출신 6·13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

7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 및 한농연 지방선거 당선자대회”는, 영농철과 원구성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당선자와 도, 시·군연합회 회장,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오후 2시부터 이경해 제1기 한농연 지방의원협

의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제1부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에서는 향후 4년간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를 이끌게 될 회장(김원기 강원도의회 의원)과 부회장(송민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노영호 안산시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의 임원진을 구성한 한농연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 선언문”을 낭독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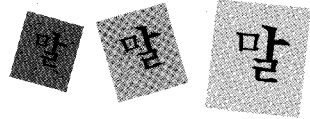


◀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신정훈 나주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지역농민들의 힘으로 당선되어 그 의미가 크다.

농업위기 극복과 지역의 자주적인 결정권 제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 창출과 회원간 역량 통일을 위한 연대의식 제고를 결의하였다.

제2부 “한농연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대회”는 한농연출신 지방선거 당선자, 해당 도, 시·군연

## 한농연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의



☞ (월드컵 국가대표 히딩크 감독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긴 후 말한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농민들은 정치적으로 배고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업경영인 출신 자치단체장까지 탄생시켰지만 아직 정치적으로 농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박흥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인사말중에서...>

☞ “274명의 한농연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합심하여 우리 농업·농촌회생에 적극 힘을 기울여달라.”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축사에서...>

☞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원의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한농연의 정책자료집이다. 항상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지역 현실에 뿌리내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해야 한다.” <김원기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장 의정활동 보고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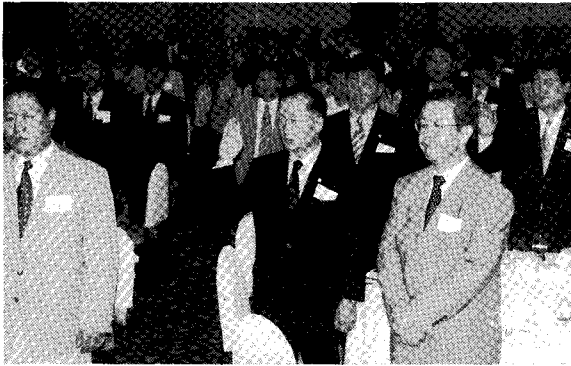
☞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농민대표로서 당선된 배경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역농업을 부활시키는 시책을 펼침으로써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구현해 나가겠다.” <신정훈 나주시장 인사말 중에서...>



▲ 제1기 지방의원협의회 이경해 회장이 제2기 지방의원협의회장으로 김원기 의원(강원도의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 한농연 제2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에서 2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원기회원이 “제2기 지방의원협의회에 주어진 책임이 무겁다”며, 274명이 하나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역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 쓸것을 다짐하고 있다.

협회장, 한농연중앙연합회 전현직 임원,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동우 한농연 지자제공명선거대책위원회회장의 경과보고 후, 박홍수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의 인사말과 박희태, 정철기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한농연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농연과 함께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

였다.

제3부 축하연에서는 신정훈 나주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 참석한 의원·기초단체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홍수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의 인사말과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만찬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참석 내빈〉

- ◎ 한농연 전직 임원 : 이흥기 초대 중앙회장, 이경해 제2대 중앙회장, 황창주 제7·8대 중앙회장.
- ◎ 내 빈 : 박희태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철기 민주당 국회의원,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허기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주신복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장원석 단국대학교 교수, 윤여두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이사장, 엄홍우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권달읍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조우봉 농협중앙회 상무,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장.



## 7·4 농업경영인 출신 당선자대회 참석자 명단

### 기초단체장 1명

(전남) 1명  
신정훈(나주시장)

### 광역의원 6명

(경기) 1명  
조봉희(용인시 포곡면)  
(강원) 1명  
김원기(고성군 토성면)  
(충북) 1명  
박종갑(청원군 내수면)  
(충남) 2명  
송민구(공주시 탄천면) 이종용(비례)  
(전북) 1명  
류근남(무주군 안성면)

### 기초의원 68명

(경기) 13명  
노영호(안산시 대부동동) 이경수(과천시 과천동) 이의길(하남시 초일동)  
이봉운(고양시 일산구) 원심덕(화성시 매송면) 김봉욱(연천군 백학면) 이원근(연천군 군남면)  
홍성훈(포천군 이동면) 이흥구(포천군 소흘읍) 이중효(포천군 군내면) 이강림(포천군 포천읍)  
이상철(용인시 백암면) 이동주(용인시 유방동)  
  
(강원) 6명  
조경일(원주시 태장1동) 권용섭(삼척시 하장면) 김성태(삼척시 신기면) 이양수(철원군 서면)  
한금석(철원군 근남면) 장진혁(철원군 근북면)

(충북) 6명

박종성(청주시 비하동) 김남원(제천시 금성면) 조방형(청원군 강내면) 구환서(보은군 마로면)  
이재열(보은군 내북면) 박범출(보은군 회남면)

(충남) 1명

성두현(서산시 해미면)

(전북) 12명

양용호(군산시 개정면) 이병태(정읍시 북면) 김정흠(진안군 진안읍) 황평주(진안군 안천면)  
손종엽(진안군 부귀면) 이재호(무주군 안성면) 이해연(무주군 적상면) 양종인(장수군 계남면)  
양영수(순창군 순창읍) 양승중(순창군 동계면) 마화룡(순창군 복흥면) 조상선(순창군 팔덕면)

(전남) 5명

오성환(나주시 동강면) 홍철식(나주시 다시면) 박종환(나주시 산포면) 노화섭(함평군 나산면)  
정현웅(함평군 월야면)

(경북) 16명

김백현(안동시 풍산읍) 권추엽(안동시 남후면) 김영욱(안동시 이천동) 이경섭(안동시 와룡면)  
우남식(안동시 상아동) 김종박(안동시 일직면) 배원섭(상주시 사벌면) 정재현(상주시 외남면)  
이맹호(상주시 이안면) 김형민(영양군 영양읍) 이상룡(영양군 입암면) 김수중(영양군 수비면)  
권재욱(영양군 일월면) 이병철(영양군 석보면) 조기석(칠곡군 석적면) 황인호(울진군 기성면)

(경남) 5명

김석천(남해군 설천면) 강상태(남해군 남면) 서봉석(산청군 시천면) 강대수(함양군 백전면)  
김재웅(함양군 함양읍)

(1특6광) 4명

이몽원(울산 울주군 덕신리) 김철준(울산 울주군 청량면) 김석암(울산 울주군 웅촌면)  
서완영(울산 울주군 두서면)



##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선언문

오늘 우리 농업은 FTA, WTO 협상 등 농업개방의 압력과 만성적인 농가소득 정체로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발전의 근원이었던 농업을 내팽개치고 농민의 삶은 파탄지경에 빠져 있다.

농업을 경시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왔던 것이 오늘 우리 농업 위기의 원인이다.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지역에 발붙이고 살면서 지역농업의 발전을 고민해 온 농민들뿐이다. 우리 농민은 이제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번 선거에서 274명의 농업경영인 출신 당선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농연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반농업 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농가 부채 문제 해결과 학교급식법 개정,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등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에 최선봉이 되어 활동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한농연과 함께 오늘의 농업위기를 헤쳐 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특히,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을 앞세우고, 이를 실천해가면서 서로가 힘이 될 것이다. 각자의 지역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만들고, 전파하는 전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를 통해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당면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방의원협의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 더욱 무겁고 깊은 것임을 자각한다.

이에 당면한 우리농업의 과제를 올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 274인이 뿔뿔 뭉쳐 하나가 되고 400만 농민을 위해 12만 농업경영인들의 선봉에 설 것을 굳게 다짐하며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2년 7월 4일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회원 일동

##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 결의문

오늘 우리 농업은 지난 몇 년간 무차별적인 수입농산물의 공세와 완전개방의 압력에 따라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반농업세력은 국가발전에 근원이 되었던 농업을 배제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을 피땀흘려 일해온 농민들은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농업위기는 농민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오늘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발족식을 맞이하여 우리는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창조적인 의정활동과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벗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높일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전국 각 지역단위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지방의원협의회 회원간 역량을 통일시키고 연대 의식을 높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2년 7월 4일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회원 일동